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

송한아
위두심리상담연구소

The Mediating Effect of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between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Han-Ah Song
WeDo Counseling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중인 중학생 360명(남: 168명, 여: 19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했고,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통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했다. 분석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부분 매개 효과를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이는 중학생에 대한 개입 방법과 함께 연구의 의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between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in self-report and online survey modes from 360 students (168 boys and 192 girls)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was verified with the Sobel test.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cybervictimization was positive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 the direct effect of cybervictimization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wa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ndirect effect of cybervictimization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rough the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was also significant. It was also confirmed from the study that the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Final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cybervictimizati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Keywords : Adolescents, Cybervictimizati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Normal Belief about Aggression,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an-ah Song(WeDo Counseling Center)

email: beingto@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15,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양상의 폭력 형태인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예로, 지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타인에 대한 악성댓글이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1,2]. 나아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이나 연예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3].

사이버불링은 기존의 전통적 괴롭힘 방식과는 다른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며,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든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형태 및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1]. 따라서 전통적 괴롭힘과는 상이한 형태 및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선행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높은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대한 유의한 예측 변인임을 확인했고,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메타연구에서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4-6]. 한국의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비율이 각각 16.8%, 29.7%에 해당하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율이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중요한 변인이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할 잠재적인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탐색하여 그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인지적 변인이 작용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이 효과적이며 정당하다고 믿는 개인의 내적인 규준인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에 주목하였다[8].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9], Fontaine과 Dodge(2006)는 행동의 수용 가능성,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신념, 예상되는 결과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0].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은 이러한 인지적 처리 과정 중의 하나로, 개인이 특정상황에서 공격행동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1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제가 작용함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반복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피해자가 공격 행동을 수용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인지하며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다'라는 신념을 내재화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능한 다양한 대안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공격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공격 행동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내적 신념을 활성화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또다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12-14]. 특히,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오프라인에 비해 주변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작용하며,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일치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5].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불링에 있어서도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영향력이 높게 작용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16].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한 Wright와 Li(2013)의 중단 연구에서도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전통적인 괴롭힘과 공격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적인 방식의 괴롭힘 피해경험과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14].

이처럼 공격행동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높은 설명력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규

범적 신념과 관련하여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에 대한 상관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도 제한적 수준에 그치며, 주로 정서적인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인지적 변인인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며,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 인지 발달이 활발히 이뤄지며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개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및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371명이 응답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1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2.2.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전신현과 이성식(2010), Hinduja와 Patchin(2012)이 각각 개발한 문항을 김은경(2012)이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8-20]. 온라인 기반 매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노출된 빈도를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2.2.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전신현과 이성식(2010) 및 심진숙(2008)의 연구에서 각각 사용한 8문항, 4문항과 함께 Hinduja와 Patchin(2009)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측정을 위해 사용한 6문항을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 타당화하여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사용하였다[18,21,22]. 지난 1년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한 정도를 측정하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2.2.3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Slaby와 Guerra(1988)이 공격행동을 지지하는 청소년의 공격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공격 신념척도를 정유진과 유미숙(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3,24]. 총 9문항으로, 괴롭힘 행위를 통한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5점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별로 특징이 강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1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를 활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25].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68명(46.8%), 여학생이 192명(53.3%)에 해당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6명(37.8%), 2학년이 101명(28.1%), 3학년이 123명

(34.2%)을 차지했다.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인 146명(40.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인 113명(31.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69명(19.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인 11명(3.1%), 4시간 이상은 21명(5.8%)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cal Variable		Frequency(N)	Percentage(%)
Grade	Male	168	46.8
	Female	192	53.3
Gender	1 st grader	136	37.8
	2 nd grader	101	28.1
	3 rd grader	123	34.2
Internet use time	<1hour	146	40.6
	1hour-2hour	113	31.4
	2hour-3hour	69	19.2
	3hour-4hour	11	3.1
	4hour)	21	5.8

3.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prime variables

Variables	mini/max	Percentage	SD
Cybervictimization	11-42	15.46	6.06
Cyberbullying perpetration	13-48	17.46	6.49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9-34	17.36	5.12

3.3 상관분석 결과

상관분석 실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r=.68, p<.01$),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높은 빈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높은 빈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및 높은 수준의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r=.36, p<.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높은 빈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높은 수준

의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for prime variables

Variables	1	2	3
Cybervictimization	1		
Cyberbullying perpetration	.68**	1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27**	.36**	1

**p <.01

3.4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1.079로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93으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1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던 바,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사이버불링의 값이 0.68에서 0.63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빈도가 증가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수준을 증가시키고,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between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B	t	R ² (Adj R ²)	F
Step1	Cyberbullying Victimization	Normative Belief	0.232	0.274	5.391***	0.075(0.073)	29.067
Step2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yberbullying Perpetraion	0.732	0.684	17.688***	0.468(0.466)	312.873
Step3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yberbullying Perpetraion	0.677	0.632	16.249***	0.502(0.499)	179.085
	Normative Belief		0.244	0.193	4.957***		

*** p<.001

Table 5. Sobel Test Result for Mediation Effect

Path between variables	B(SE)a	B(SE)b	Z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Cyberbullying Victimization=>Normative Belief=>Cyberbullying Perpetration	0.232(0.043)	0.244(0.049)	3.659***

*** p<.001

4.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변인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4,26].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비행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타인과의 접촉 경험으로 작용하여, 사이버불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이버불링을 하나의 놀이 혹은 장난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을 학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보다 손쉽게 가담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회학습이론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27]. 다음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부분매개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

향을 주었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공격행동이 나쁘지만 효율적이다, 공격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와 관련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수준을 증가시켜서 공격행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높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죄책감 없이 보다 쉽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전통적 방식의 괴롭힘 피해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14,15,28]. 나아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포함한 괴롭힘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나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적대적 귀인, 도덕적 이탈 등과 같은 인지적인 변인이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선행연구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14,29-32].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개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피해경험의 높은 설명력이 선행연구 및 본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시사된다[33]. 이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성이 시사된다[34,35]. 또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시에 괴롭힘 피해경험 및 공격행동에 대한 감소 효과가 확인된 인지적 공감능력, 자기주장훈련 및 사회기술 훈련 등을 포함하여 개입을 진행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36]. 나아가,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및 교사에게도 사이버불링의 부정적 결과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37].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이뤄지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그 기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37,38]. 본 연구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던 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담하는 청소년의 인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수준을 파악하고 인지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39]. 즉,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관련한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신념을 수정해 나가야겠다[40].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안적으로 사고하며 효과적인 대처 전략 찾아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1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되어 온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에 주목하여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성에 대한 규범적 신념 외에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에 대해서도 주

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재학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고, 이에, 추후에는 타 지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설계되어 진행되었던 바,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순환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S. H. Lee, J. H. Gang, W. S. Lee,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Research Re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pp.41-44, 2015.
- [2] S. Hinduja and J. W. Patchin,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Vol.29, No.2, pp.129-156, Jan. 2008.
DOI: <http://dx.doi.org/10.1080/01639620701457816>
- [3] Y. O. Jo, "The Study on the responses to the cyber-bullying of juveniles in foreign countries", *Police science journal*, Vol.10, No.3, pp.335-371, 2015.
DOI: <http://dx.doi.org/10.16961/polips.2015.10.3.337>
- [4] R. M. Kowalski, G. W. Giumetti, A. N. Schroeder, and M. R. Lattanner,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40, No.4, pp.1073-1137, 2014.
DOI: <https://doi.org/10.1037/a0035618>
- [5] D. S. Jun, D. Y. Kim, "The Effects of Adolescents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 Vol.29, No.3, pp.157-180, 2015.
DOI: <http://dx.doi.org/10.17327/ippa.2015.29.3.007>
- [6] J. O. Choi, "Influence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n Cyber Bullying :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Moderation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Crisisonomy*, Vol.11, No.5, pp.195-214, 2015.
- [7] D. J. Choi, J. B. Jang, J. H. Lee, "Fact-finding on Cyberviolen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p.1-185, 2018.
- [8] L. R. Huesmann and N. G. Guerra,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 No.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408-419, 199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2.2.408>
- [9] N. R. Crick and K. A. Dodge,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Vol.67,

- No.3, p.993, 1996.
DOI: <https://doi.org/10.2307/1131875>
- [10] R. G. Fontaine and K. A. Dodge, "Real-time decision making and aggressive behavior in youth: a heuristic model of response evaluation and decision," *Aggressive Behavior*, Vol.32, No.6, pp.604-624, 2006.
DOI: <https://doi.org/10.1002/ab.20150>
- [11] Y. Peled, M. B. Medvin, E. Pieterse, and L. Domanski, "Normative beliefs about cyberbullying: comparisons of Israeli and U.S. youth," *Heliyon*, Vol.5, No.12, p.e03048, 2019.
DOI: <https://doi.org/10.1016/j.heliyon.2019.e03048>
- [12] K. J. Kwak, H. Y. Kim, Y. J.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social Behavioral Tendency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dolescents", *The Korean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 No.1, pp.145-156, 1991.
- [13] S. K.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group normative belief about aggressio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pp.12-13, 2014.
- [14] J. Y. Lee, *The effect of Peer Bullying Experience on Aggression: Mediated effect of hostile attribution and normative belief*,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pp.70-71, 2014.
- [15] B.-S. Kim,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ult Cyberbullying-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Informatization Policy*, Vol.28, No.2, pp.57-80, 2021.
- [16] K. A. Burton, D. Florell, and D. B. Wygant, "The Role Of Peer Attachment and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on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50, No.2, pp.103-115, 2012.
DOI: <https://doi.org/10.1002/pits.21663>
- [17] M. F. Wright, Y. Li, "The Association Between Cyber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Cyber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Rej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2, No.5, pp.662-674, 2013.
DOI: <http://dx.doi.org/10.1007/s10964-012-9903-3>
- [18] S. H. Jun, S. S. Lee, "Exploring Explanatory Factors for Youth's Cyber-bullying by Cell Phone",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17, No.11, pp.159-181, 2010.
- [19] S. Hinduja, J. W. Patchin, "Cyberbullying: Neither an epidemic nor a rarit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9, No.5, pp.539-543, 2012.
DOI: <http://dx.doi.org/10.1080/17405629.2012.706448>
- [20] E. K. Kim, *Study on the Predictors of Youth's Cyber Bullyi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Korea, pp.87-93, 2012.
- [21] J. S. Sim, *Study of adolescents' cyber-delinquency behavior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pp.51, 2008.
- [22] S. Hinduja, J. W. Patchin,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pp.1-312, 2009.
- [23] R. G. Slaby and N. G. Guerra,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No.4, pp.580-588, 1988.
DOI : <http://dx.doi.org/10.1037/0012-1649.24.4.580>
- [24] Y. J. Jung, M. S. Yoo,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Adolescent's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1, No.2, pp.399-417, 2012.
- [2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e 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6] D. K. Kim, D. H. Kim, Y. S. Lee, S.W.Lim, "A Study on the Cyber-Violence Induction Factors of Teenagers: Focused on individual inclination, cyber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moral consciousnes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19, No.1, pp. 79-129, 2006.
- [27] Oh, Tae-K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ed Experience and Emotion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8, No.12, pp.207-215, 2013.
DOI: <https://doi.org/10.9708/JKSCI.2013.18.12.207>
- [28] J. H. Kim, S.A.Kim, "For the new adolescents culture", *Intelligenc and Creation*, Vol.3, pp.295-320, 2000.
- [29] D. S. Jun, D. W. Kim, "Does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nfluence Cyberbully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Public Policy Review*, Vol.29, No.3, pp.157-180, 2015.
DOI: <https://doi.org/10.17327/IPPA.2015.29.3.007>
- [30] G. Dou, Y. Xiang, X. Sun, and L. Chen, "Link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Undergraduates: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ger and Moral Disengagement"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Vo.13, pp.1269-1276, 2020.
DOI: <https://doi.org/10.2147/prbm.s286543>
- [31] C. D. Pornari and J. Wood, "Peer and cyber aggres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outcome expectancies," *Aggressive Behavior*, Vol.36, No.2, pp.81-94, 2009.
DOI: <https://doi.org/10.1002/ab.20336>

- [32] R. S. Yeung and B. J. Leadbeater, "Does Hostile Attributional Bias for Relational Provocations Mediate the Short-Term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Pre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6, No.8, pp. 973-983,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6-9162-2>
- [33] A. Williford, L. C. Elledge, A. J. Boulton, K. J. DePaolis, T. D. Little, and C. Salmivalli, "Effects of the KiVa Antibullying Program on Cyberbullying and Cybervictimization Frequency Among Finnish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42, No.6, pp.820-833, 2013.
DOI: <https://doi.org/10.1080/15374416.2013.787623>
- [34] H. B. Go, S. Y. Lee, "The Effects of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Empathy on the Types of Cyberbullying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9, No.1, pp.21-43, Jun. 2021.
DOI: <http://dx.doi.org/10.35151/kyci.2021.29.1.002>
- [35] A. N. M. Leung, D. C.-L. Fung, and J. M. Farver, "A Cyberbullying Intervention for Hong K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Vol.13, No.4, pp.1037-1053, Nov. 2018.
DOI: <http://dx.doi.org/10.1007/s11482-017-9572-1>
- [36] S. M. You, J. M. Kim, C. G. Kim, and E. M. Park,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g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3, No.3, pp.63-82, Sep. 2017.
DOI: <http://dx.doi.org/10.33770/JEBD.33.3.4>
- [37] S. Ak. Y. Ozdemir, and Y. Kuzucu, "Cyber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anger, don't anger m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49, pp. 437-443, 2015.
DOI: <https://doi.org/10.1016/i.chb.2015.03.030>
- [38] S.-J. Nam, "The Effect of Tension and Low Self-Control on Cyber Deviation: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Anonym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9, No.2, pp.63-74, 2011.
DOI: <https://doi.org/10.6115/khea.2011.49.2.063>
- [39] S. R. Kim and H. H. Kim, "The Influence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 Attribution and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ve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7, No.6, pp.57-68, 2016.
DOI: <http://dx.doi.org/10.5723/kics.2016.37.6.57>
- [40] Beck, A. T.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2000.

송 한 아(Han-Ah Song)

[정회원]



- 201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석사)
- 2017년 3월 ~ 2020년 2월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수련
- 2021년 4월 ~ 현재 : 위두심리상담 연구소 임상심리사

<관심분야>

사이버불링, 인지행동치료